

큰스님 수행한담

공부하기 가장 좋아요”



1977년 10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진덕사에서 고암스님(사진 맨앞)과 포행하는 국봉스님(사진 가운데).

주 서중학교에 다니던 송담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고암스님을 찾아와서 곧 졸업하게 되니까 입산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고암스님이 전강스님에게로 보냈습니다. 송담스님은 입산하고 나서 7년 묵은정진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강스님이 수좌들을 지도한다는 소문이 나자 불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짝은 모습이 보기 좋아서인지,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저도 불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회에서 데려가려고 들 많이 그랬는데 아마 마음이 약했으면 지금까지 승복을 입지 못했을겁니다.

“인연과보는 믿지않고
샀된 귀신 신봉하는 것은
거꾸로 왜곡된 마음때문이죠”

정도 단식하든지 하면 될것입니다. 쌀(米)자는 팔십팔(八十八)을 의미합니다. 한복의 쌀알이 사람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든 여덟 번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긴과정을 거쳐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 생기를 북돋워 주건만 예사로 음식을 버리고 밥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외는 거승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보면 '村己德行全缺應供 放心難過食等爲宗 正思良藥爲療形格' (나의 덕행으로 마땅히 이 음식을 공양받음만한가를 돌이켜보며 탐심을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약으로 생각할것)라고 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정진할때는 3백일 기도를 했는데 하루8시간씩

귀신이나 신봉하는 것도 전도몽상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안이비닐신의(眼耳鼻舌身意)에 속아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 매달려 탐욕을 부리다가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지혜의 눈으로 보니 일체중생이 모두 여래의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법신 부처님의 현현이므로 이 도리만 확신하게 믿는다면 불퇴전의 보살이 되어 언젠가는 성불하게 될것입니다. 제 주변에 재물을 여한없이 모은, 나이가 지긋한 거사님이 한분 있는데 그분은 늘 허전함을 감출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것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나 구하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이요, 둘째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오래살고 건강해도 결국은 죽게 마련이니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언제나 공허함을 면치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부터 사람은 죽을때보면 그 사람됨과 수행의 깊이를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질병에 걸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잘 날을 예언하고 좌탈입망하는 스님네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임종은 태연자약했습니다.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임원이 정진할 것을 다스리던 당부하시고는 80평생의 노구를 벗어버리셨지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욕망의 불에 활활 타고 있는 화택에 비유하시고는 출가자가 돈과 명예,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철저한 무소유정신과 중생제도를 위한 자비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속히 생사관을 넘어서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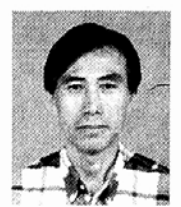
정리=이윤호 기자 (yilee@buddhania.com)

명예와 재물은 삼독 키우는 헛된 욕심
무소유와 자비정신서 행복 나와요

성스님의 제자입니다. 조실방에 들어가 3배를 올리는 저에게 동산스님은 "어디서 오는가?"고 물었습니다. "나주 다보사에서 오는길입니다"고 대답하자 스님은 다시 "다보사에서 몇걸음에 오는가?"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일발(한걸음)로 옵니다"고 답하고는 이어 "다보사에서 몇걸음에 왔느냐고 묻는 자는 누구입니까?"하고 반격했습니다. 스님은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시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더군요. 그때는 젊어서 열기발랄하고 의욕이 넘치던 때라 힘들어도 힘든줄 모르고 정진했습니다. 다보사에 인연 용화사 조실로 계셨던 전강스님이 조실로 오신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강스님은 한소식 하신분으로 제방에 널리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침에 불이 켜지면 대중들이 모두 모여 3배를 올리고 법문을 들곤 했는데 당시 방

저는 한때 여러 번 단식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주일씩, 열흘씩 곡기를 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수행자에게 단식은 업장을 소멸하고 나쁜 습(習)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과격한 단식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그리 권장할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단식은 굶는 기간보다 회복기간이 더욱 중요하데 회복을 잘못하게 되면 단식을 반복해야 되는 순환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진치의 삼독심을 끊는 단식(斷心)입니다. 아무리 단식을 많이 해도 삼독심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단식이 끝나고나면 다시 도루묵이 되니 말입니다. 평소 정진하다가 지나치게 과식한다면 식사량을 줄인다든지 하루 두끼만 먹는다면지 하면 될것이고 굳이 단식을 하고 싶다면 날을 정해 한달에 하루

목탁을 치며 석가모니불 정경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7일동안은 잠을 안지고 용맹정진을 했는데 마지막7일째 되던날 비몽사몽간에 헤어질수 없이 많은 스님들이 가득 모여있는 법회장이 보였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다가 연화살보좌가 비어있길래 거기에 앉으려고 했더니 동산스님이 옆에서 "아직 그 자리에는 올라갈때가 아니다"며 달려요. 그리고 나서 문득 의식을 차렸는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공부를 이룬다는게 쉬운게 아니구나"하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다보선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도(顛倒)된 몽상 때문입니다. 전도란 거꾸로 왜곡된 마음입니다. 이몽은 공한 것인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성은 확연한것인데 오히려 길지를 잃는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연과보는 믿지않고 샀된



강정기

(정호백케이지 대표)

<完>

인간사는 만남이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무형 모든 만남을 포괄하고 있다. 나의 51년 삶도 만남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 대학교 재학중 만난 불법은 새롭고 특별했다. 사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을 만났었다. 하지만 불법의 진리를 모르고 성장했을 뿐이다. 내가 태어난 경남 남해에는 아담한 절이 있었다. 화방사가 바로 그곳이다. 유년시절 이 절은 나의 놀이터였다. 그곳에서 하루종일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때론 어른들을 따라 절을 하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이러한 불교와의 만남은 부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불심의 씨앗을 갖게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만

삶의 회향이자 포교라는 생각으로
'죽은 자 위한 천도 기도' 10여차례

남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이러한 인연은 대학시절 불교교적을 두루 정독하면서 가지 못했다. 그 당시 불발속에 무한한 삶의 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 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찾아



로 지금까지 10여명의 천도기 안에서 기도기도를 했다. 내가 찾아가는 상가는 대부분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상가이다. 이들은 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섰다.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홀로 가부좌를 틀어보기도 했다. 또 사찰순례, 봉사활동도 해 봤다. 이처럼 교리공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겠다는 나의 신념은 어머니가 병환에 들면서부터 바뀌었다. 우리 부부는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할 정도로 점차 병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답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헤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을까', 이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봐도 간호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서울 불광사에 다니고 있었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정례를 가르치고 있는 연화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것이구나'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갔다. 아들이 아닌 불자로서 투병중인 어머니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것

경제적으로 가난해 49재는 고사하고 천도염불조차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사찰을 짓고, 법문을 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포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바로 포교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곳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병원 영안실의 경우 타종교의 전도활동은 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광적이다. 하지만 불교의 경우는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불교식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불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영주와 목탁을 놓지 않는 생각이다. 이는 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왕토 흙벽돌기계
!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 흙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력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관종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절혈,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비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성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력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까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산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